

내달부터 신라면 50원·새우깡 100원 내린다

농심 신라면·새우깡 각각 4.5%·6.9% 인하

삼양식품 등도 인하 동참...오뚜기·팔도 등도 검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대표 시민 식품'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라면 업계 1위 농심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농심이 주력 제품 '신라면'의 가격 인하를 전격 결정했고, 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라면 업계 후발 주자들도 뒤따라 가격을 내릴 조짐이다. 일부에선 빵·과자 등 여타 식품 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밀 가격이 내렸으니 라면 가격도 내렸으면 좋겠다"며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도 제분업체들을 만나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농심은 7월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소매점 기준 100원에 판

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심이 C제일제당 등 국내 제분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의 가격은 7월부터 5.3% 인하될 예정이다. 농심이 얻게 되는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80억원 수준이다. 이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삼양식품도 라면 가격 인하 대열에 동참한다. 삼양라면·불닭볶음면 등 라면을 판매하는 삼양식품은 "라면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이번주 안에 품목과 인하폭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뚜기와 팔도 등도 라면 가격 인하를 고심 중이다. 오뚜기는 7월 중진라면 등 주요 라면 제품 가격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팔도 비빔면·도시락(용기면)을 판매하는 팔도는 "아직 가격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건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풀무원도 이번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계획이다. 풀원은 지난해 하반기 '라면 빅4'의 밀레이 가격 인상 당시 조정을 하지 않았다. /뉴스

광양제철소, 예지정비 엔지니어 스마트기술 인재 양성

광양제철소가 설비부문 엔지니어의 예지정비 기술 양성과정을 진행하며 광양제철소의 스마트 기술 역량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제철공정 전반에 걸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전략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스마트 역량 내재화를 위해 올해부터 당사 설비부문 엔지니어 대상으로 예지정비 관련 맞춤형 기술컨설팅과 스터디 그룹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스마트 예지정비 구현 토대를 다지며 설비 혁신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스마트기술 역량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1:1 기술지원 제도를 운용해 각 엔지니어 직원들이 문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스마트헬프센터'의 전문기술 지원으로 코칭을 받게 된다. 빅데이터 및 AI 개발 등 스마트 기술에 대해 포스코 명칭을 비롯한 당사 핵심 전문가가 코칭과 컨설팅 제공에 참여하며 해당 기술의 실증적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설비 이상탐지 분야와 관련된 당사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과정도 제공되며 포스코DX의 이상탐지 알고리즘 전문 교육과정도 동시에 제공돼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1건 이상 '역전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3건 중 1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비 전세 보증금 평균 2859만원이 하락하는 등 하반기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연립·다세대 2021년 1~5월 전세 거래 3만7697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825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4.7%인 2869건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3건 중 1건 이상이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2859만원(평균11.2% 하락)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빌라의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역전세 거래 중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금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순으로 나타났다.



함평군, 흑하량 상추차(茶) 일본 수출길 올라...수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량'으로 만든 상추차(茶) 일본 수출 상차식이 지난 26일 동함평산단 내 ㈜천지운에서 진행됐다. 함평군 제공

광주시,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13곳 모집

자금우대·기술사업화 지원 등 광주대표 기업 육성

광주시는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참가 기업을 28일부터 7월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체 가운데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 3% 이상인 기업이다.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2021년 10월~2023년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기간연장 기업을 포함해 총 1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와 발표·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제7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경영진단·맞춤형 기술사업화·자금우대 등 기업 성장목표와 수준에 따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한편 광주시는 강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스타기업 76개사, 지역혁신선도기업 8개사, 글로벌강소기업 42개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5개사 등 총 131개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권형안 기자

대한항공도 임단협 난항...올 여름 항공대란 발생할까

대한항공, 사측 2% 임금인상 제시에 노조 17.5% 요구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노사간 임단협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입장차가 계속 클 경우 해외 여행객이 많은 여름 양사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사측은 올해 임금인상률로 2% 수준을 제시했는데 조종사노조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갈등이 심화될 경우 쟁의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도 이달부터 준비투쟁에 돌입했는데 내달까

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7월말을 기점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지난 23일 6차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인상률에 대한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인상을 2%를 제시한 반면 노조는 17.5%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임협 인상을 2%와 성과상여금 50% 인상을 제시했다"며 "사측은 4년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은 물론 미래 영업환경에 대해 불확실성만 반복 주장할 뿐 2%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4년간의 물가 상승률 평균값을 12% 수준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난해 10%를 인상했으니 올해는 2% 인상을 수용하라고 한다"며 "이는 회사가 앞으로 어떤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임금인상은 평균 물가상승률이 최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과 향후 임단협을 진행하며 쟁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쟁의에 돌입할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운항 시간이 지연시키는 준비투쟁 또는 공익사업장 유지 비용 안에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뉴스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운영



2023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현판식 열차 (2023. 06. 26. (일))

광주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주시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현판식을 지난 26일 북부동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에 대한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단 운영과 비R&D 지원사업인 'Stand-up' 맞춤형 지원을 수행한다. /권형안 기자

9월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2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 2회차 '9월 황금벌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지난 5월 동행축제 모집에서는 총 813개 업체가 신청해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300개 기업에게는 온라인기획전 및 개막식 오프라인 전시혜택, 경품이벤트(동행축제 짐하기 이벤트, 제품구매 인증하고 캐스퍼 받자 등), 누리집·SNS·언론 홍보 등을 지원했다. 특히, 5월 동행축제 기간 중 참여한 A기업은 2억3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B기업은 동행축제 오프라인 기획전이 매출 신장뿐

아니라 부수적인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 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진행되는 동행축제 또한 5월과 같이 3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개모집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의 기회와 홍보 등이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에는 추석을 맞아 해 프로모션 및 가격 경쟁력(무료배송, 할인율 등)과 상품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9월 동행축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외환 10만 달러 이내면 신고 없이 송금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 초부터 유학생 자녀에게 외환을 송금할 때 10만 달러 이내면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절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

은행권, 4%대 예금금리 다시 늘여

은행 정기예금 39개 중 4개는 연 4%대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은행권에서 자취를 감췄던 금리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2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은행권에 금리가 공시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39개 상품 중 4개 상품이 최고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정기예금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다. Sh수협은행은 'Sh첫만남우대예금'에 최고 연 4.02%, '헤이(Hey)정기예금'에 최고 연 4.00% 금리를 제공한다. 수협은행은 16일 주요 예금상품의 기본금리를 최고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두 상품의 금리가 4%대로 올라섰다. BNK부산은행은 '더(The) 특판 정기예금'에 최고 연 4% 금리를 준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

달 초 연 4% 정기예금 특판을 5000억원 한도로 진행한 바 있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5%대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왔다. 이에 4%대 예금이 자취를 감췄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5%) 아래로 내렸다. 하락했던 예금금리는 4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39개 정기예금 상품 중 10개는 이날 기준 기본금리가 전월 취급 평균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전월 취급 평균금리가 연 3.56%로 이날 기준 최고 금리가 0.54%포인트 더 높다. 기본금리(연 3.80%)도 0.24%포인트 높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연 3.71~3.80%다. 전월 취급 평균금리는 연 3.52~3.70%였다.

광주은행, 자회사 'JB증권 베트남' 우수직원 초청 연수



광주은행은 최근 베트남 소재 해외 자회사인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이하 JBSV)'의 현지 우수직원 4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점으로 초청해 격려하고 연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

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을 선정해 광주은행 본점 및 PrimePB센터 견학과 한국증권거래소 방문 등을 통해 선진금융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형안 기자